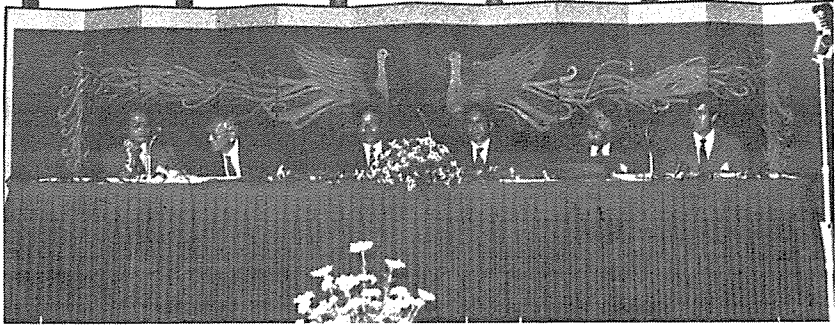


THE 9TH APCO/FP CONFERENCE
= REVIEW AND FUTURE OF THE INTEGRATED PROJECT =
18-23 OCTOBER, 1982 SEOUL, KOREA



효율적인 사업전개 논의

아시아寄生虫관리·家計사업회의

10월18일~23일까지. 서울가든호텔 개최

제9차 아시아 기생충관리 및 가족 계획통합사업회의가 한국 등 13개국 대표와 관련 국제기구 대표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통합사업의 회고와 전망」이란 주

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한국기생충 박멸협회와 대한가족계획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회의는 74년 도부터 시작한 가정보건사업의 효과적 인 수행과 그간 한국을 비롯한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5개국이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의함으

해 설

기생충관리·가계통합사업이란?

오늘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기생충관리·가족계획 통합사업회의(Asia Parasite Control/Family Planning Conference)는 약칭 「아프코」(APCO/FP) 회의로 불린다.

지난 74년 한국을 비롯 일본, 자유중국 3국의 가계·기생충박멸사업전문가가 모여 가족계획사업과 기생충 구충, 영양개선 등 3개 사업을 공동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가족계획·기생충·영양문제는 대개 가난한 나라의 문제로서 사업추진 비용도 각개 사업을 따로 추진하는 것보다 적게 들며 특별한 전문인력도 많이 필요치 않다는데서 착안됐다.

처음 회원국은 한국, 대만, 인니, 태국, 필리핀이었는데 이 세가지 합동사업의 성과가 예상 외로 높아 몇년 사이에 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말레이시아가 가입했고 비슷한 처지의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등 남부미 국가도 참여했다. 특히 이번 서울회의에는 WHO, 유니세프 등 7개 국제기구도 참석하는데 그 중 유니세프는 기존 가족계획, 기생충구충, 영양개선 3개통합사업 외에 환경위생까지 포함해 줄 것을 희망하며 자금제공도 제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유니세프에서 13명이나 참석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며 각 회원국 정부의 고위관리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유도 통합 사업의 높은 성과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도 화성군이 시범 지역으로서 통합사업의 성과가 크며, 용인군도 자원하여 사업을 벌이는 등 예상외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로서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현재 진행중인 각국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는데 목적을 두었다.

현재 가정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3개국 및 관련국제기구의 연례회의를 겸하고 있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필리핀 등 5개국이 사업성과를 발표하고 기타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네팔, 스리랑카,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등이 참가하며 참가한 국제기구는 WHO,

UNFPA, UNICEF, ESCAP, APCU, IPPF, JOICFP 등이다.

한국은 1976년 7월 경기도 화성군에 5개면을 대상으로 가정보건사업을 시작하여 80년부터는 2단계로 화성군 전체 17개 읍면을 대상으로 확대했으며 81년 후반기부터는 추가로 龍仁郡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해오고 있다.

건강관리사업 활발히 전개

각 시도지부에 계획지침 시달

1983년도 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편성지침이 지난 10월 14일 컨설팅본부에서 전국 각 시도지부에 시달되어 일반회계사업(자체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집단검사를 실시하여 비전염성 만성질환이 발견되면 지정의료기관에 진료의뢰를 하여 검진시설을 년차적으로 확보하며 부설의원기능 강화로 환자의 조기발견, 검진차량 확보 등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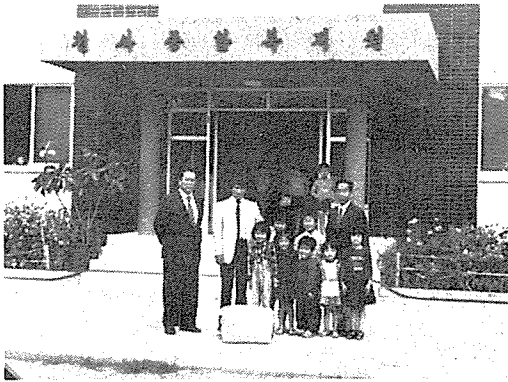
대상자로는 학생(초, 중, 고, 유치원) 및 사업장 근로자 및 피부양자, 여성단체, 노인회, 조기회 등 비영리단체, 밀집거주지역주민(아파트주민), 무검사실의료기관, 연구특수사업 등이다.

기타 검진차량운행 현저출장검사와 개별검사도 병행 실시하여 내원자 검진도 적극 확대 실시토록 되어 있다.

또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건강검진에 참뜻을 알려 건강관리에 주민 스스로가 자진 참여토록 권장하기로 했다.

천사의 집 방문 기념품 전달

—기협, 중추절 맞아—



(사진 : 천사의 집을 방문한 서기홍실장, 임용직 국장 일행과 자매결연 아동들의 기념촬영)

한국기생충박멸협회에서는 1982년도 중추절을 맞이하여 불우이웃돕기의 하나로 자매결연된 천사의 집을 방문했다.

본부 서기홍 감사실장을 비롯, 서울시지부의 임용직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 이번 천사의 집 방문에서는 약간의 기념품 및 선물과 함께 격려금을 전달하여 자매결연 어린이들을 즐겁게 하였다.

또한 서기홍 감사실장은 어린이들에게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것을 당부하고 격려했다.

기생충 弘報館 이전

서울지부, 강서구 등촌동으로



기협 서울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생충 홍보관이 지난 9월28일 강서구 북동에서 강서구 등촌동으로 540의 4호로 이전했다.

김포가도에서 강서구청쪽으로 100m쯤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는 새로운 기생충홍보관은 앞으로 서울시민들을 위해 전시물관람, 보건교육 상담 및 진료, 학습장활용, 순회교육, 가두 홍보활동등을 해서 기생충의 유해에 대한 다각적 역할을 한다.

새로 이전된 기생충 홍보관 전하는 다음과 같은데 시민여러분의 많은 활용을 바라고 있다.

새전화번호 : 603-6129

(사진 : 새로 이전한 기생충 홍보관)

•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

한국기생충박멸협회 본부 및 서울지부 경기도지부 전직원은 1982年 10月 6日 농촌일손돕기 베타기를 실시했다.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산본리에서 실시한 이번 농촌일손돕기로 1500坪의 논을 베타는데 한참 일손이 모자

라는 농촌에 이와같은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농촌 베타기에 일손을 도왔다.

(사진 : 농촌 베타기 일손돕기 광경)

寄贈 機資材 인수

健協, 仙臺 예방의학 서서비스센터서 비전염성 만성질환 검사에 소요되는 검사기자재가 제1차로 일본 仙臺 예방의학 서서비스센터로부터 기증되어 왔다.

1982년도 기증 확정된 기자재중 일부인 이 기자재는 8월13일에 健協이 정식 인수하였다.

지원 기자재 품명은 다음과 같다.

- 심전기 및 기록계 2개
- 안저 카메라 2개 1개
- 안저 카메라 부품 1개
- 자동 분석기 1개
- 고속 원심기 5개

